

 국토교통부	보도해명자료		
	배포일시	2020. 1. 10(금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주택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이명섭, 사무관 최민석 • ☎ (044) 201-3324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가승인통계에 따른 최근 3년('17~'19)간 서울 집값 변동률은 11.46%입니다.

<보도내용('20.1.10, 조선일보)>

- ◆ 44% 댄 서울 도심 집값, 글로벌 도시 상승률 1위
- 서울 도심 집값은 평당 5,800만원으로 세계 4위
- 서울 도심 평당 집값은 파리보다 1,000만원, 도쿄보다 1,700만원 비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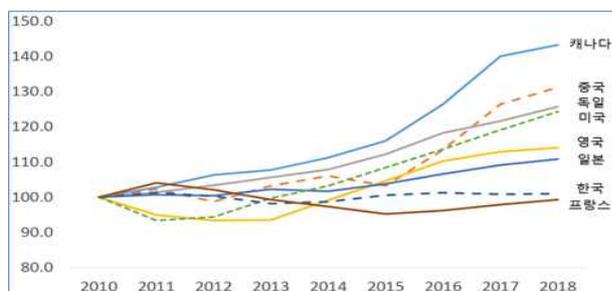
□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, 최근 3년('17~'19)간 주택가격 변동률은 서울 11.46%, 강남4구 14.99%로 보도에서 인용한 변동률 44%는 사실과 다릅니다.

○ 또한, '19.12월 기준 평균 주택가격은 서울 26,512천원/β.3m², 강남4구 40,867천원/β.3m²으로 보도에서 인용된 평당 5,800만원도 사실과 다릅니다.

○ 또 다른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('14~'18) 서울 집값 상승률이 런던, 베를린, 시드니,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도시 대비 낮은 수준임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.

*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('19.5, 국토연)

국가별 실질주택매매가격 지수(OECD) 주요 도시 주택매매가격 변동률(Economist)



- 한편, 동 보도에서 인용한 국가·도시 통계 비교 사이트인 '넘베오 (numbeo)'는 사이트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,
 - 모든 국가·도시의 집값 통계에 동일한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, 직접적인 비교의 근거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.
 - 또한, '도심'의 개념도 실질적인 생활권역 등에 따라 각 국가·도시의 여건이 상이하므로, 사이트 사용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
- 풍부한 유동성 및 추가 상승 기대감, 일각의 공급부족론에 따른 불안 심리 등으로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서울 집값이 12.16 대책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.
 - 정부는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,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며,
 -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 정책과 최민석 사무관(☎ 044-201-332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